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17-학인-00001 인격권 침해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 ○ ○

피 해 자 ○ ○ 중학교 ○ 학년 ○ 반 학생들

피 신 청 인 ○ ○ 중학교 교사 ○ ○ ○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학교에서 교사가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을 포함한 내용으로 교육을 한 차별행위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별도의 대책(차별금지교육, 유사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별도의 대책(학교관리자를 포함한 교육구성원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유사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한다.

2) ○○중학교장에게

가. 피신청인의 학생인권 침해행위는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추천한 강사에 의한 차별금지 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등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및 보호조치로서 피해회복 중심의 인권교육과 심리상담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중 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주장 및 학생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7. 3. 7.(화)경 ○학년 ○반 교실에서 피신청인은 ○학년 ○○ 1단

원을 수업하면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의 의복이 사진과 같이 얼굴만 노출시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라는 문제를 설명하였다.

2) 같은 때, 피신청인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여성은 가족 이외의 남성에게 신체를 보이면 안 된다는 문구가 있어서 신체 대부분을 가리고 얼굴만 보이도록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하였다.

3) 같은 때, 피신청인은 “이슬람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여성의 지위가 다른 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여성이 신체를 많이 노출하면 남성들에게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코란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으며,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남성이 원할 경우 다른 문화권에 비해 이혼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4) 같은 때, 피신청인은 ○학년 ○반 ○○○ 여학생의 교복 치마를 미니스커트에 비유를 하며, “요즘 학생들이 이런 미니스커트나 짧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폭행이나 성희롱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였다.

(중 략)

2)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

위 인정사실 2), 3)항과 같이, 피신청인이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여성은 가족 이외의 남성에게 신체를 보이면 안 된다는 문구가 있어서 신체 대부분을 가리고 얼굴만 보이도록 옷을 입는다.”, “여성이 신체를 많이 노출하면 남성들에게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코란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이슬람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여

성의 지위가 다른 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남성이 원할 경우 다른 문화권에 비해 이혼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한 것은 해당 종교 종교인의 의견에 따라, 피신청인이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을 포함한 내용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성희롱에 대해

위 인정사실 4) 항과 같이, 피신청인이 ○학년 ○반 ○○○여학생의 교복 치마를 미니스커트에 비유하며, “요즘 학생들이 이런 미니스커트나 짧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폭행이나 성희롱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한 사실에 대해 다수의 학생들이 피신청인이 수업시간에 해당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수치심을 느꼈거나 여학생들이 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여 피신청인이 잘못된 성관념으로 학생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생 설문 조사 결과 중 “3월 7일 ○학년 ○○선생님 ○○○선생님께 남성비하발언을 들었다. 여성을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한다고 들었다.”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해당 발언을 들은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남학생들도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3.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임송 (서명)